

공부근육



설대학원

[www.smpschoool.com](http://www.smpschoool.com)

## 1. 최상위권 학교·학과 진학에는 특목고가 유리한가? 일반고가 유리한가?

새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폐지 및 선발시기 조정, 교육과정 개정, 수능·내신 절대평가 등 대입제도의 큰 변화가 예측됩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야 한다는 의견과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고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목고의 선발시기가 일반고와 같아질 경우, 불합격한 학생들이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도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목고의 입시결과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최상위 특목고의 대학진학 실적은 만족할만한가?

최근 3년 동안 각 분야 최고의 학교의 서울대 입시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국내대학 진학인원)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서울과학고(약 120명)	57(49%)	74(62%)	68(57%)
민사고(약 120명)	35(29%)	41(34%)	35(29%)
외대부고(약 280명)	61(24%)	79(28%)	73(26%)

\* 괄호 안은 지원자수에 대한 서울대 합격자수 비율

이들 3개 학교에 합격하는 것은 서울대 합격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3개 학교 모집인원은 520명이고, 서울대학교 정원은 예체능 계열을 빼면 3,200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들 특목고에 합격하는 중3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일반고에 진학하는 최상위권 중3학생(나중에 서울대 갈 학생)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심지어는 특목고에 합격한 중3학생이 그해 서울대에 합격한 고3보다 영어·수학·과학을 더 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학교들 중 서울대 진학에 성공한 학생들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약 34%입니다. 서울대 안가고 의대 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울대 합격자와 의대 합격자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전형도 한정적이라 아무리 높게 보아도 서울대 + 의대 진학률은 40%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목고 열풍이 거세지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임에 반해 이들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대입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지방 특목고의 경우 진학실적은 더 저조합니다.

먼저 대구일과학고와 서울권 과학고의 최근 3개년 서울대 입시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졸업생수	합격자수	졸업생수	합격자수	졸업생수	합격자수
대구일과학고	79	6(7.6%)	45	4(8.9%)	73	8(11%)
한성과학고	138	18(13.0%)	69	14(20.3%)	135	24(17.8%)
세종과학고	176	24(13.6%)	54	9(16.7%)	168	26(15.5%)

\* 괄호 안은 지원자수에 대한 서울대 합격자수 비율

대구일과학고에는 대구시 내 중학교 상위 3%정도의 학생들이 진학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 응시인원이 약 60만 5,000명이고, 이 중 3%는 18,150명, 서울대 정원은 3,200명 정도이니, 대충 계산해도 대구일과학고 7기 졸업생 73명 중 13명 정도는 서울대 진학할 자질이 있는 학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 8명만이(의대 합격생 포함하면 9명) 서울대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일과학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 1) 실제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대 이공계 수시일반전형의 정원은 약 800명뿐이다.
- 2) 서울대 입시에서는 고교 내신이 관건이다.

1)번의 경우 서울대 입학정원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약 3,200명 수준이지만, 수시지역균형선발전형이나 수능성적이 반영되는 전형들은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정원은 약 800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과학고의 정원은 1,600명이 넘습니다. 또 영재학교 졸업생도 2015학년도까지는 502명이었지만,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졸업생도 가세하면서 2019학년도부터는 매년 약 900명 정도의 영재학교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서울대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중 일부 이탈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탈하는 학생 수보다 영재학교 졸업생수 증가폭이 더 큼니다. 여기에 전국자사고, 광역자사고, 일반고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이 서울대에 합격하기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의 경우 서울대 입시에서는 내신이 관건인데 내신 성적은 잘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과학고 입시방식이 내신 성적 위주의 입학담당관제이다보니 수학·과학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다기보다 내신 관리를 잘한 학생이 선발됩니다.(단, 대구일과학고의 경우 현 중1이 입학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수상실적반영을 하겠다고 예고했음) 이 학생들이 모두 학생부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로 상대적으로 영재학교 입시를 치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서울권과학고(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의 경우 지방과학고보다 서울대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내신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 중 비교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수가 지방과학고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사고의 진학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자사고들도 매년 두 자릿수의 서울대, 의대 합격자수를 자랑하고 언뜻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 1) 자사고가 전국적으로 전과목 all A인 내신 1~2%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라는 점
- 2) 의대 합격자는 중복합격자가 많다는 점
- 3) 재학생의 100% 가까운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학실적을 알려면, 학교 측에서 중복합격자와 재수생 숫자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2017년 고교별 재수생비율을 파악해보면 서울 H고 60.23%, 대구 G고 53.67%입니다. 이는 반수생과 삼수이상 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인데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대입실적 발표 시 그런 정보는 밝히지 않습니다. N수하여 정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파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 측에서 내세우는 서울대와 의대 합격자수를 3이상으로 나누어야 실제 그해 고3이 진학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 부풀리기는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정상 모든 특목고의 진학결과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입학 성적에 비해 대입 결과는 아주 좋지 않다.”

입학생들의 수준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특목고의 대입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특목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합니다. 모두가 ‘특목고=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목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 왜 특목고의 대입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가?

#### 1. 특목고의 교육환경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특목고에 가면 ‘1) 좋은 환경에서, 2) 좋은 선생님께 배우면서, 3)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4) 일반고에서 할 수 없는 스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을 해보면

- 1)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는 어지간해서는 공부환경이 좋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교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규정으로는 취침시간과 소등시간이 있지만, 불 끄고 방에서 이야기하고 게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새벽까지 놀고 학교 수업시간에는 조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2) 특목고 중에도 공립학교는 어차피 교사가 순환근무를 합니다. 물론 일반고와 비교하면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하고 있겠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특목고 입학생들의 중론입니다. 또, 학교별로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교원을 많이 뽑는데 전공실력은 있으나 전달력이 부족한 선생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특목고나 일반고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습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수업을 듣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부해야하고 학원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특목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듭니다.
- 3)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장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겨운 경쟁상대입니다. 전국적인 시험(수능, 올림피아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내신에서 불리합니다. 그나마 올림피아드도 계속 축소되고 있고, 올림피아드 실적을 기재할 수 있는 전형도 거의 없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0.1점차로 당락이 갈리는데,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에서 너무 많이 손실을 봅니다.(절대평가를 하는 영재학교의 경우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는 내신경쟁이 덜합니다.) 학원에 가도 잘하는 학생들끼리 반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경쟁을 하면 되는데, 굳이 학교에서까지 살벌한 내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R&E, 외부대회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견 장점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2013학년도 대입부터 주요대학에서는 교외대회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도 최대 3가지 활동까지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이 많다보니 막상 공부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학교별로 심한 케이스를 예로 들었지만, 정도가 심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 3학년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언론에서 특목고 교육환경을 너무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100%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 2. 입시제도상 특목고에서도 최상위권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 1) 수시모집 일반전형(이하 수시일반, 원래 명칭은 특기자전형) - 서류, 구술면접반영
- 2)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이하 수시지균) - 내신, 면접반영
- 3) 정시모집 (이하 정시) - 수능반영

먼저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과학고 학생들의 전형별 서울대 합격 인원

학년도	전체인원	수시일반		수시지균		정시	
		선발인원	합격자	선발인원	합격자	선발인원	합격자
2016학년도	1626	1689	106 (6.5%)	597	0(0%)	920	6 (0.3%)
2017학년도	1626	1673	144 (8.8%)	597	0(0%)	963	5 (0.3%)

\* 괄호 안은 서울대 합격자수 중 과학고 출신 합격자수 비율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영재학교 학생들의 전형별 서울대 합격 인원

학년도	전체인원	수시일반		수시지균		정시	
		선발인원	합격자	선발인원	합격자	선발인원	합격자
2016학년도	789	1689	204 (12.1%)	597	0 (0%)	920	4 (0.4%)
2017학년도	789	1673	232 (13.9%)	597	0 (0%)	963	3 (0.3%)

\* 괄호 안은 서울대 합격자수 중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수 비율

보시다시피 ‘내신’과 ‘수능’을 점수화하여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순간, 합격률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일수록 0.1점이 아쉬운데, 과학고 학생은 내신에서 이미 많은 감점을 당합니다. 또한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수시 일반전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 진학할만한 과학고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조기졸업대상자인데, 조기졸업을 한다는 것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입학정적이 더 좋은 영재학교 학생이 3년을 마치고 졸업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조기졸업한 과학고 학생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과학고에서도 조기졸업생들에게 서울대 진학은 매우 소수만 할 수 있다고 진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일반전형 합격자수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전국에서 올림피아드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재학교, 과학고에 진학을 하는데 수시일반전형 선발인원의 약 22.4%만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입니다. 놀랍게도 일반고 출신의 수시일반전형 합격자는 약 34.2%로 1.5배 더 많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선행학습과 올림피아드로 단련된 특목고 학생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일반전형에 더 많이 합격할까요?

수시일반전형이라고 해도 ‘내신은 기본, 수상실적은 옵션’입니다. 서울과학고에서 올림피아드 국가대표였던 학생조차도 서울대 수시일반전형 1차 서류전형에 탈락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류심사에서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을 보는 잣대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심사에서 낮은 스펙의 일반고 학생이 높은 스펙의 특목고 학생을 제치고 합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목고에서도 스펙대로 원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 순서대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줍니다.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도 최대 3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차 수학과학 심층면접에서도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이 과학고 학생에 비해 특별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일반고 학생이나 특목고 학생이나 심층면접에 필요한 내용은 대부분 학원에서 해결합니다. 심층면접 자체도 공대는 수학만, 자연대는 과별로 전공 관련과목만 보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습니다. 난이도도 올림피아드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어고(이하 외고)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외국어고 학생들의 전형별 서울대 합격 인원

학년도	전체인원	수시일반		수시지균		정시	
		선발인원	합격자	선발인원	합격자	선발인원	합격자
2016학년도	6152	1689	210 (3.4%)	597	0 (0%)	920	113 (1.8%)
2017학년도	6152	1673	217 (3.5%)	597	0 (0%)	963	93 (1.5%)

\* 괄호 안은 전체 외국어고 학생수에 대한 서울대 합격자수 비율

과학고에 비해 일반전형 합격자 수가 적습니다. 전체 학생수에 대한 비율로 따져보면 9배나 차이 납니다. 외고 학생의 대부분이 문과에 진학하는데, 문과의 경우 이과의 올림피아드처럼 ‘비밀 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문과의 경우 외고에 다니지 않아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아서 외고의 장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외고의 정시전형 합격자 수는 과학고에 비해 많습니다. 과학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능준비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고보다 정시 합격자가 많아 봤자 전국외고 학생 대비 1.5% 밖에 안 됩니다.

※ 2017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별, 고교유형별 합격자수

	영재교/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자공고
수시지균 (597)	0 (0%)	0 (0%)	31 (5.2%)	566 (94.8%)
수시일반 (1673)	376 (22.4%)	262 (15.7%)	276 (16.5%)	573 (34.2%)
정시일반 (963)	8 (0.8%)	127 (13.2%)	285 (29.6%)	527 (54.7%)

\* 괄호 안은 전형전체정원에 대한 학교별 합격생수 비율

\* 수시일반전형에서 예체능계열 등 기타 합격자수는 제외

이렇듯, 특목고 학생들은 어떠한 경로를 노리던 간에, 서울대 합격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이하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중학교 때 석차를 생각해 보면, 특목고에서 연·고대 간 것은 본전 아니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 4. 서울대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하는 것인가?

공부 잘 한다던 특목고 학생도 서울대 합격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서울대는 누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 1. 어떤 전형에 지원하던 내신이 좋아야 한다.

모든 전형에서 내신 성적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내신이 좋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

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시지균전형에서는 내신을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수시일반전형에서조차 내신이 좋지 않으면 좋은 수상실적을 가지고도 1차 서류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시전형에서는 수능성적이 좋으면 합격이 가능하지만 서울대는 정원의 71.4%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일부 학과(통계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에너지자원공학부)는 아예 정시모집이 없기도 합니다. 서울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내신 성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 2. 수시를 노릴 경우, (수시지균전형제를 제외하고) 국영수의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다.

수시지균전형에서 구술면접은 시간도 약 10분 내외이고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일반전형에서는 구술고사(45분)와 면접(15분 내외)이 있습니다. 시험범위는 고교수준을 넘지 않지만 수시일반전형의 경우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수능최저가 없기 때문에 구술면접으로 변별력 확보) 해당과목 심화공부가 필요합니다. 단, 올림피아드 수준보다는 훨씬 쉬우므로 구술면접 대비를 위해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거나, 고3이 되기 전에 면접대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 3. 정시를 노릴 경우, 수능을 잘 쳐야 한다.

정시전형에서는 수능성적으로 100%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성적이 절대적입니다. 최근 '쉬운 수능'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더라도 최저등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연습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4. 수상실적, 비교과영역 등은 옵션이다.

옵션은 옵션일 뿐입니다. 기본(내신)이 안 되어 있으면 옵션으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이 옵션이 교과우수상, 교내경시대회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남들만큼 갖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별로 중요한 전형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일반전형	수시지역균형선발전형	정시전형
내신	중요	절대중요	X
국영(문과)수과(이과) 심화	중요	X	X
수능	X	(최저학력기준)	절대중요
수상실적, 비교과 등	중요	참고	X

\* 수시 지균에서 수능최저등급이 3개영역 2등급으로 강화되면서 지균선발인원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5학년도 기준 지원생의 45.6%가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015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서울대 합격생의 출신고교유형별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영재교/ 과학고	외고/국제고	기타	합계
2015학년도	1799 (53.4%)	598 (17.8%)	389 (11.5%)	395 (11.5%)	224 (5.8%)	3405
2016학년도	1805 (53.4%)	652 (19.3%)	323 (9.5%)	387 (11.5%)	210 (6.3%)	3377
2017학년도	1808 (53.1%)	603 (17.7%)	347 (10.3%)	389 (11.6%)	219 (7.3%)	3366

\* 괄호 안은 전체 서울대합격자수에 대한 학교별 합격생수 비율

\* 자사고 합격생에는 전국자사고와 광역자사고합격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종합해보면 ‘서울대는 일반고 학생을 위한 학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전체 정원의 약 66.6%가 일반고 학생이고(광역자사고 포함), 특목고(과학고, 영재학교, 외고)학생은 20.7% 뿐입니다. 나머지는 예술고, 자사고, 검정고시, 실업계고, 국제고, 해외 학교 등에서 차지합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특목고의 서울대 진학실적이 의외로 무척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특목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에 서울대 입시실적이 나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목고 의대 입시실적은 서울대 입시실적보다 더 저조합니다. 상위권 의대일수록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고(1.1등급 이내) 수능최저등급 역시 매우 높는데(경북대의대 4개 영역 합이 5등급/ 연세대 의대 3개 영역 합이 3등급) 특목고 학생들은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능준비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경기 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과학 국가대표급의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매년 20명 내외의 학생이 수도권 의과대학에 과학인재전형 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합니다.

## 5. 결국 공부근육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변화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라 하여 선발권을 가진 자사고가 2배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입시를 비롯한 입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1996학년도 서울대 입시와 2017학년도 입시를 비교해 봅시다.

평가요소		명칭	
		1996년	2017년
몸통	내신	내신 성적	학생부 성적
	국영수과 심화	본고사	구술면접
	수능	수능	수능
양념	수상실적, 비교과 등	그 당시 없었음	현재 참고함

내신, 국영수과 심화, 수능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성격의 시험입니다. 물론, 수능은 1996년에 비해 쉬워졌고, 지필시험인 본고사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구술면접형태로 변화했습니다. 그나마 추가된 것이 수상실적과 비교과인데, 이조차 내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 때문에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서쓰기 직전에야 실감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몸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양념만 가지고 말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신, 국영수과 심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부근육(독해력, 사고력, 연산력)이 필요합니다.**

독해력과 연산력을 키우려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하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집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내신 성적이 좋고, 문제집 많이 풀고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서울대 갑니다. 무슨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이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 해결 방법이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창의사고력 수학’과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아무리 붙여봤자, 그것이 시험의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많이 풀어본 학생은 풀어내고 처음 보는 학생은 틀립니다. 30년 전의 학력고사와 무엇이 다르니까? 학력고사도 ‘사고’안하고 공식만 외우면 고득점이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한 비법 생각하지 말고, 책상에 오래 앉아 깊이 고민하는 학생이 잘하게 되어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 6. FAQ

### 1. 그렇다면 특목고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취지는 ‘특목고의 부풀려진 실상을 바로 보자’는 것이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특목고를 거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대부고를 거쳐 서울의대에 합격한다면 (입시 성과의 측면에서)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1등할 수 있다면 일반고에서 1등하는 것보다 외대부고에서 1등하는 것이 입시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반고에 갔으면 충분히 서울대 갈 만한 학생이, 외대부고에 진학한 후 서울대에 못 간다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합격보다 가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목고에 가서 잘하지 못하면, 본인과 똑같은 실력의 일반고 학생보다 한두 단계 낮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큼니다. 충분히 알고 특목고에 지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가서 잘 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라

→ 특목고 3~4등급 보다는 일반고 1등급이 유리하다.

2) 가서 잘 할 수 있는 학교가 여러 개라면, 그 중 가장 좋은 학교에 진학하라

→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실력이 있으면, 특목고로 가라.

### 2. 과학고에서 서울대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KAIST, 연·고대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요?

학교 수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주요 과학고를 기준으로 KAIST나 연·고대에 진학하는 것은 크게 좋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해야 본전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전치기 하려고 그 고생을 해서 과학고에 합격해야 하나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노력 대비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리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고·영재학교 정원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과학고 학생의 KAIST, 연·고대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학고에서 50%~60%를 하는 학생이 2012학년도에는 카이스트나 연·고대를 갈 수 있었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성균관대, UNIST 정도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DIGIST와 GIST의 커트라인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작 (일반고 갔다면) 연·고대 갈 실력의 특목고 학생들은 다수가 연·고대에 진학 못하고 그 이외의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큼니다. 대입 결과만 보면 ‘어쨌든 본전 아니면 손해’입니다.

특히 ‘과학고에서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니 2년 만에 대학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 1) 과학고의 조기졸업이 축소되고 있음
- 2) 막상 대학에 입학하면 1년 일찍 진학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

2014학년도에 입학한 과학고 학생들부터 조기졸업 인원이 20%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예외 : 대구일과학고의 경우는 40%) 또한 1년 조기졸업은 했는데 재수·삼수를 하는 과학고 졸업생도 아주 많습니다. 중학교 때 자기보다 성적이 낮던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면서 대학 진학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기졸업에 끌려서 과학고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참고로 일반고에서 KAIST나 연·고대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은 해당학교에 합격할 성적의 학생들이 지역 의대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고등부 올림피아드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서울대 입시에서 올림피아드수상실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에 여름학교, 겨울학교 입교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거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한 줄의 스펙은 될 수 있습니다.

수시일반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1차 서류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될 때, 서울대 합격에 영향을 줄만한 수상실적은 대개 겨울학교 입교 정도의 성적입니다. 그런데 올림피아드는 매해 축소되는 추세고, 겨울학교에 입교할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고등부 올림피아드는 노력 대비 비효율적이므로 준비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일부 영재학교에서 내신대비로 필요한 경우라면 올림피아드 준비를 병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4. 과학고나 외고에서는 서울대 가기 힘든 것 같은데 자사고는 어떤가요?

빠르면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의 선발시기가 일반고와 동일해집니다. 불합격시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지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입학생 수준이 높은 자사고라면,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서울대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의 학교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 받기 쉬운 정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일반고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어느 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수능과 구술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특목고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과학고, 영재학교에서는 수능 대비를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대 구술면접의 경우 난이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특목고 학생들도 면접은 대부분 학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더 많이 받고, 심지어 교육비까지 일반고생에 비해 더 비싸게 책정된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 6. 고교절대평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목고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현재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1~9등급제의 등급과 A~F의 6등급제가 병행표기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예고되었던 고교절대평가와 새정부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2018년 8월경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고1에 문·이·과공통과목을 배우고, 고2부터 94개의 선택과목을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과 과정중심 평가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학생 수요에 맞춰 교과

목개설을 할 수 있을지, 또 0.1점차로 성적이 갈리는 최상위권 입시에서 과정중심의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도 교육부 지침으로 많은 고교들이 지필고사를 서술형평가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서조차도 공정성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고교학점제의 경우 빠르게 실시해도 2022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8년 8월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고교내신과 수능이 모두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이 현재보다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변별력확보와 보완책 필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내신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방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교 유형별, 지역별로 합격생수가 일정 수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목고 학생이 유리해지려면 비교내신제(수능 전국%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제도)도입, 학생부교과전형 폐지, 수능제도 개편(자사고는 수능상대평가가 유리, 영재학교·과학고는 수능절대평가가 유리), 본고 사부활 등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내신제나 완전한 절대평가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국의 1,500개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가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경되는 것을 그냥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도 일부학교 대입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특목고 학생의 내신은 일반고 학생과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목고 가서도 잘 할 수 있다면 특목고로 진학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메이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 일반고로 진학하려는 학생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저 의대 진학시 같은 내신 등급이라도 출신 학교별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7. 서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창의사고력 수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소위 ‘창의사고력 수학’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루는 주제	쓰이는 곳	공통점
비교과형	수학퀴즈(암호, 논리, 퍼즐 등등)	초등영재원	서울대 입시와 무관
	이산수학		
교과형	기존 교과심화문제를 말만 바꾼 것	중등영재원,	
	새로 만든 교과심화문제	특목고입시	

서울대 수학 구술면접문제는 전부 ‘고교수학(고1과정, 미적분, 확률과 통계, 벡터)’에서만 출제 되었습니다. 창의사고력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입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교과형 문제가 간간히 출제되기도 합니다. 중등수학의 1학기 과정이 대수, 연산, 함수 파트인데 이것은 고1수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특목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논증기하(2학기 과정) 심화문제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의사고력 수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산을 제외하면, 시중문제집에 나오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라도 사고력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의사고력 수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계기는, 영재교육원과 일부 특목고입시에서 ‘교과과정의 지식을 물을 수 없다’는 교육부 출제 방침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뻔한 수학문제인데 ‘이 문제는 교과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우기기 위한 연막작전입니다.

## 8. 서울대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크게 고교 입학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학 전에는 ‘공부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독해력)
-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연산을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연산력)
- 학교진도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선행학습하면서 수학 심화문제를 풀어본다.(사고력)
- 영어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 단, 시험영어가 아닌 근본적인 영어실력을 키워야 한다.

고교 입학 전까지는 기본적인 ‘공부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주변의 특목고 준비생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하겠지만 초조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특목고 준비생의 90% 는 헛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교 진학 시 1) 내신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서 2) 면학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름난 명문고에 가게 되면 내신경쟁이 치열해져서 특목고에 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위 분위기와 상관없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최대한 입학생 수준이 낮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7. 참고 (개정교육과정과 수능안)

2017년 기준으로 현 중3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며, 2022학년도 수능(현 중2)부터 수능제도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 중3의 경우 2015교육과정을 배우면서 2009교육과정의 수능을 치르게 되어 학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현 중3의 경우 현 고1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 고1	현 중3
고1 수강과목	융합과학, 사회선택	통합과학, 통합사회
고2 수강과목	사회/과학 선택과목	사회/과학 선택과목
수능 선택과목	과학탐구 중 2개	과학탐구 중 2개
수능 절대평가과목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과목 명칭만 바뀌었을 뿐, 배우는 내용이나 수능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수학 수능범위에서 기하의 포함여부는 2018년 2월 발표예정) 오히려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과목을 시험 치는 것보다 현재처럼 고2, 고3때 배우는 과목을 수능에서 보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현 중3학생들은 변경되는 교육과정과 수능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없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고 학교 내신 성적관리에 집중하면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 되겠습니다.

## ※ 참고

표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시안

2018 수능(현행)			⇒	제1안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제2안	전 과목 절대평가
1	국어		1	국어		국어	
2	수학 가/나형 중 택1		2	수학 가/나형 중 택1		수학 가/나형 중 택1	
3	영어		3	영어		영어	
4	한국사		4	한국사		한국사	
	-		5	통합사회 · 통합과학		통합사회 · 통합과학	
5 6	탐구 (택1)	사회탐구 9과목 중 최대 택2	6	탐구 (택1)	사회탐구 9과목 중 최대 택1	탐구 (택1)	사회탐구 9과목 중 최대 택1
		과학탐구 8과목 중 최대 택2			과학탐구 4과목 중 최대 택1		과학탐구 4과목 중 최대 택1
		직업탐구 10과목 중 최대 택2			직업탐구 단일과목		직업탐구 단일과목
7	제2외국어 / 한문 9과목 중 택1		7	제2외국어 / 한문 9과목 중 택1		제2외국어 / 한문 9과목 중 택1	

\*음영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과목

- 1안: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과목 절대평가
- 2안: 모든 과목 절대평가

표2. ◆고등학교 교과 단위 배당 기준

현행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기초	국어	10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0
	과학	10
체육 예술	체육	10
	예술 (음악/미술)	10
생활 교육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소계		86
학교자율과정		9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개정안(2015 개정)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공통과목 (단위)
기초	국어	10	국어(8)
	수학	10	수학(8)
	영어	10	영어(8)
	한국사	6	한국사(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0	통합사회(8)
	과학	12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체육 예술	체육	10	
	예술 (음악/미술)	10	
생활 교육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소계		94	
학교자율과정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